

통일교육의 위기

단상



이주호

사법법인 청원코리아 청년본부장

우리에게 통일은 얼마나 가까운가? 이 질문에 청소년과 청년들은 점점 더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민족의 숙원사업에 들어서는 '통일'은, 2020년대에 들어서서 청년세대에게는 '불확실하고 부담스러운 일',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경고다.

2024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78.9%의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여전히 주로 중심이며, 청년과 청소년이 느끼는 현실적 고민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부담, 세금 증가, 취업 경쟁 심화, 사회 혼란 등에 대한 솔직한 논의는 거의 없다. 오히려 통일은 민족의 의무라는 낡은 명제를 반복하며, 현실적 질문을 외면한다.

게다가 교육은 체험이 아닌 설명에 머무른다. 청소년들은 동영상, 게임이나 현장 견학을 원하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강의식이다. 통일교육은 지루하고 낡았으며,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다는 인식이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정책 사업이 진행되며,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일명 '합의형식 토론회' 등도 이루어진다.

특별히 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통일 여론 조사와 형성에 자문을 하거나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일교육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라고 할 수 있다.

2만명 이상의 민주평통위원, 수천명에 달하는 통일교육위원, 이들 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정책 자문과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위원회는 지역과 학교 현장에 통일교육을 기획·실행하는 책임 주체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이를 혼인 위원으로, 형식적 회의와 행사 참석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기획

한 교육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공감을 이끌어냈는가? 냉정히 돌아볼 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안보는 토대, 인권은 공감" 통일교육의 정교한 설계 필요

통일을 이야기할 때, 냉철한 현실 인식은 필수다. 안보교육은 청년들에게 북한의 군사력, 남북 간 긴장 상황, 국제 정세 속의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단순한 희망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안

보교육은 통일교육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이를 배제한 나관적 통일론은 공허한 외침일 것이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통일교육을 실효적 있게 만드는 토대를 제공한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문제를 교육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 억압적 체제, 표현의 자유 부재, 정치범 수용소 등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은 북한 주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공감의 기반을 마련한다.

북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으로서 각자의 목표와 방식이 구분되어야 하며, 북한 비판이 통일무용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은 인류 보편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이는 통일교육의 명분과 감성적 공감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통일은 관심 밖이라고 말하는 현실은 통일정책의 실패이자 교육의 실패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회와 민주평통 위원회는 '상징적 직함'에서 벗어나 진화 행동하는 교육자, 실천가로 거듭나야 한다. 청년과 청소년이 통일을 다시 상상할 수 있도록, 통일은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듣고, 같이 기획하고, 같이 바꾸는 것이라는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가 믿는 건 금배지?



아침 햇살
고하승 주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 정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경태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장경태 대표가 신속하게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일주일째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장경태 대표의 말과 의중이 다르다는 걸 간파한 때문일 것이다.

당 안팎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담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윤리감찰단은 모호기로 일관하는 건 그래서다.

이런 장경태 대표가 장경태 의원을 보호해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니 민주당 의원 중에서

노골적으로 장경태의 성추행 혐의를 옹호하며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하는 사람들과 속속출하고 있다.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당시 피해 여성을 '해 소인'이라고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

장경태가 또 믿는 건 다수당 금배지의 힘이다. 실제로 장경태 의원은 3일에도 평소처럼 버젓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의정활동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법사위에 앉아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양심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한다. 나까지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준강제 추행 혐의 고소해 있는데 이해증서"이라며 퇴장을 촉구했으나 장경태

는 콧방귀조차 쀈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장경태를 응원하는 입장만 일기처럼 벌어졌다.

심지어 그는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TV조선이 보도한 영상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특히 취재원인 피해자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재원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데 이에 반하는 요구를 한 셈이다. 기자 윤리 강령 따위를 우습게 아는 다수당 국회의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장경태의 대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다수당 금배지의 위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우악한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경태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물론 그런 합들이 잠시 진실규명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장경태 의원은 지금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자업자득이다.

기고



안중숙

서울 마포소방서 예방과

천비탈이 불기 시작하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하지만 따뜻한 곳을 찾는 순간,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전기화재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겨울철, 전기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자

4개월 동안 발생하는 전기화재는 연간 전기화재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온열매트 등 전기기구의 장시간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기화재는 전선이나 기기 내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불꽃이나 연기기 바로 보이지 않고, 벽이나 천장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기화재는 주로 밤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선의 노후화와 손상이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단선되어 누전지 발생하기 쉽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전열기구의 부주의한 사용이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거나, 전기히터 근처에 가연물을 두는 등의 행동이 화재를 유발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 제품 사용 전 전선과 플러그 상태 확인, 전선이 꼬이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플러그가 헐거워나 그을린 곳은 없는지 사용 전·후 매번 확인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플러그만 사용하고, 고품질 전기제품은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히터 주변 정리정돈: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주변에는 이불, 옷가지, 신발 등 불에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

보형감지기기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어야 한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이다.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전기화재는 '잠깐 우리 집에서'라는 방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다. 겨울철 따뜻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전기제품 사용 전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생활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안전은 가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 안전을 지키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3676-2114	국회선정 (02)296-0217	발행·편집인 조운상 편집국장 이영환 인쇄인 정용호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치·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296-0392	
사회·수도권부 (02)296-0314	편집부 (02)296-0242	
총무국 (02)296-0217	영입국 (02)296-0164	FAX (02)762-8223
광고문의 (02)296-0164	윤리관 (02)3675-7956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여의도동, 국회VF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경남 우수 브랜드 쌀' 4년 연속 수상 영호진미 합천쌀

